

지난 8·15로 우리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했다. 지나간 반세기는 우리의 근대화의 역사에 다름아니며 그것은 동시에 한국의 근·현대 건축 50년이기도 하다. 해방은 우리의 근·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이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뜻깊은 사건이었다. 우리의 근대화의 내용과 성격은 여러가지로 규정지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 일제 35년간 상실했던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쌓아올리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 점은 건축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현대사의 온갖 고초와 시련을 딛고서, 그리고 통일을 위시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숭한 난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남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일구어 냈다는 데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지녀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 지난 50년의 우리의 근대사는 세계에서든 유례가 없는 빠른 경제 성장과 공업 발달로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성공적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건축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건설과 개발의 역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깊이 성찰해 볼 때 우리의 근대사를 무조건 성공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그것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해야 더

합당할 것이다. 외형적 성장과 경제발전의 대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이 삶에 근본적인 것이며 쉽사리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지만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의 자연 환경과 국토 공간, 그리고 도시경관의 피폐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양적팽창과 물적 풍요 이면에서 우리는 삶의 환경의 또 다른 척박함과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역사의 대차대조표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않다.

이제까지 간과해왔던 것들이 이제 보다 큰 가치를 지니게 되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비싼값을 치루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변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수도꼭지만 틀면 마냥 공짜로 마실 수 있었던 물이 오늘날 휘발유나 콜라보다 비싼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건축에다 적용해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지고의 가치로 간주되었던 건설과 개발이 이제 재고되어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하며, 건축에서도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가치라는 것이 건설 행위의 전면에 나서게 됐음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광복 50주년을 즈음하여 우리에게 한국 건축의 근대사를 깊이 성찰하도록 촉구하는 두가지 사건이 터졌다. 그 하나는 삼풍백화점 붕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이다. 두 건축물 모두 정상적인 수명을 다한 끝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이들의 분노와 원망이 서려있다. 그것들은 그야말로 우리 근대사와 한국 근·현대 건축의 일면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사건들이며, 그 이면에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여러가지 화두들을 제공한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단적으로 우리 근대화의 무모성과 허구성을 드러냈다.

광복 50주년 : 근대화와 건축의 근대사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
Modern History of Architecture

姜 嫻 /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Hyeok

그 붕괴와 더불어 우리가 추구해온 성장과 발전의 신화가 함께 무너졌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며, 법과 규범도 아니며, 상식과 지성도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과정이 결과에 묻혀버리고, 미래가 현재에 희생되는 사회에서 삼풍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최소한의 윤리도 결여된 비정한 자본과 기술이 합작해 일으킨 작품으로, 사회학적으로 진단하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공동체의 붕괴인 것이다. 삼풍은 유달리 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와 도시 도처에서 이러한 근대화의 부정적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보다 잘 살기 위해 추진해온 지난 반세기의 역사적 과정이 오히려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이 뼈아픈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을 위한 건축, 인간을 위한 도시는 교실에서나 유효한 허울 좋은 구호일 뿐 도구적 합리성으로 자본과 권력에 봉사해온 것이 한국 현대건축이 걸어온 길이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국토를 망가뜨리고 도시 환경을 숨막히는 곳으로 만들어 온 것이 우리 건축인이 아니었던가?

삼풍 사건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근대화와 현대건축을 근본적으로 돌이켜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정말 이제는 '죽임'의 건축이 아니라 '살림'의 건축을 할 때가 됐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에서 건강, 행복, 문화, 환경, 윤리 같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으나 정말로 소중한 가치들을 회복할 때이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건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이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막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각성해야 한다. 그 실천을 위한 제도적, 구조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 때 실수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광복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구 조선총독부 청사의 돔 상부 랜턴을 건물 본체에서 떼어내어 기중기로 지상에 내려놓는 광경이었다. 그것은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 모습은 치욕적인 과거와의 결연한 단절을 의미하는 듯 했고 국민의 속을 후련하게 했다. 말뚝던 구 총독부 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반세기를 매듭짓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일부 인사들의 속은 편안하지가 않다. 한 건물의 존폐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과 연결된다는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그것이 광복 50주년 행사의 메인 이벤트가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한,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건물의 해체를 통해 지나간 반세기를 정리하고 다가올 반세기를 전망한다는 논리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어쩌면 일제 35년을 청산한

다고 하면서 우리의 현대사 50년을 지우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19년 동안 총독부 청사로 쓰였던 이 건물은 그보다 두 배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중앙청이었고 십수년 동안 국립 중앙박물관이었다.) 그리고 지워진 그 자리에 또 다른 과거(경복궁)의 복원을 통하여 미래를 건설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일제의 청산은 우리의 삶의 여건과 의식을 바꾸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일개 건축물의 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바탕 정치적 잔치로 끝날 구 총독부 청사의 철거는 역설적으로 그 건축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일제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하다.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정궁(경복궁) 파괴와 총독부 건립에 대응하여 거꾸로 총독부 파괴와 정궁 복원으로 응수한다는 것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일제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일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구 총독부 청사의 존폐 논의에는 실상 건축물의 의미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한 건물이 담고있는 의미나 상징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한 건물이 지니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이미지는 영구 불변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한 건물이 표상하는 의미는 건물 자체에 각인되어 고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물리적 맥락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변화에 따라 좌우된다. 구 총독부 청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서 일제의 야만성과 흉계를 읽으려는 쪽과 그것보다 그 이후의 한국 현대사의 축적을 더 비중있게 읽고자 하는 쪽 간의 상반된 시각때문이다. 전자는 이 건축물의 의미를 건립의도, 건립주체, 배치개념, 스케일에서 찾으려고 한다. 후자는 그 보다 광복 이후 우리 현대사의 역사성에서 찾고자 한다. 양자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의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후자의 견해가 보다 설득력있고 성숙한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구 중앙청의 철거에서 공공건축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 밖에 없는 상징적 성격, 그리고 권력 및 여론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치적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된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한 건물의 운명을 지나간 과거 및 다가올 미래를 결부시키는 데서 사회 속에 건축이 가지는 존재 의미를 되씹게도 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 속에 존재하는 건축의 역사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건축가의 손에 의해 지어진 그것은 이후 독자의 삶을 누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은 항상 이쉽고 서운하다.